

아름·고립의 섬 ‘소록도’ 역사·문화 자산 보전·활용한다

환경부,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 착수 인권유린 현장 한센인들 아픔 공감 ‘힐링·봉사의 섬’ 탈바꿈 방안 마련

평생 격리돼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의 아픔과 슬픔이 배어있는 ‘섬’ 소록도(小鹿島)의 자연·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 계획이 마련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공개 입찰로 ‘소록도 자연가치 등의 보전·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한센인 치료를 위해 외부인 접근이 제한된 소록도의 경우 우수한 자연환경과 특별한 역사·문화 자산이 있어 국가적으로 보전·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용역 추진 배경이다.

자연가치를 토대로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보호지역 외 규제는 없지만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지정해 우수 생태계는 보전하고 훼손지 복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생태계를 역사·문화 자산과 함께 보전·활용해 국내 도서지역에 대한 우수 모델을 마련하겠

다는 구상도 엿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소록도 내 역사·문화·자연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소록도 미래 비전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 추진전략 마련 ▲복지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지자체·주민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센인 고령화(평균 80.9세)로 인한 환자 수 급감에 따른 소록도 단·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섬의 동·식물상을 고려한 우수생태지역 공간을 구분하고 보존하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섬을 자연공존지역·보호지역(습지·생태경관·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하거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검토도 이뤄진다.

100년 이상의 한센인들의 역사·문화를 보전·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 기획·관리 전략도 마련된다. 한센인 격리·치료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부지와 한센인 감소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시설을 소록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한센인들을 감금하고 감금실과 검사했던 시설, 녹소 철강살 등의 건물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인권유린의 현장이면서 아픔·고립의 섬인 소록

도 역사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의 아픔을 위로받는 힐링, 봉사의 섬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소록도 환자의 치료, 보호, 생활권 집합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통행식 추진이 아니라, 지역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국토 30%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가목이나 늦춰졌던 섬 환경 개선·개발이 더디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 ‘2030 포럼’에 참석한 광주시의회, 광주마당 2030포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재생에너지 인프라 강점으로 에너지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2030 포럼’ 지역 산업현황 진단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 조성 필요”

지역 총생산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광주시가 현재 산업 구조를 전면 혁신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역 총생산은 전국에서 하위 3번째에 해당하고,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워 재생에너지, 반도체, 미래 자동차 생태계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 ‘2030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지역의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산업 생산력을 감소하고 있지만, 혁신역량과 잠재력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기준 지역 총생산(GRDP)이 45.2조원인 광주는 세종과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경제적 낙후’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산업 매출은 금형 등 ‘스마트뿌리산업’이 18.6조원, ‘모빌리티

산업’(17조원), ‘광융합·가전사업’(11.6조원) 등이 주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아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심의 납품 의존형 산업구조,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지역 내 저부가 가치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술고도화 혁신역량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 김 원장의 지적이다. 여기에 세계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청년 인구의 정주 여건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다만 혁신역량은 높아지고 있고 잠재력과 전망이 좋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28% 차지하고 있는 호남은 ‘에너지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목 광주연구원 첨단산업도시연구실장은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 부품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는 5대 전략사업으로 모빌리티,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산업, 2개 기반사업 광융합·가전, 스마트 뿌리산업, 2개 도전산업 반도체와 데이터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한 박사는 “광주의 9대 대표산업을 13개 초광역 공약과제를 보다 현실화 해야 한다”며 “광주첨단산단과 빛그린·하남 산단을 연계해 ‘광주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미래차산단 철도 구축 등도 공약과제로 꼽았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계 산업은 2015년 디지털 전환 변곡점을 맞은 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그린 전환’이 새로운 성장기회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이 충분한 호남은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교육·놀이 함께 ‘광주 아시아 캐릭터랜드’ 탄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유아·어린이 문화콘텐츠 체험시설

오룡동에 208억 투입 2026년 준공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광주시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광주시는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앞선 두 차례의 심사에서 각각 재심의와 반려 결정을 받은 뒤 삼수 끝에 문턱을 넘어 서면서 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지역 창·제작 콘텐츠와 아시아 각국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 어린이들의

문화콘텐츠 체험 시설이다. 북구 오룡동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에 30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850㎡, 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캐릭터 빌리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공간, 소규모 공연장, 공작소, 어린이 행사 룸, 캐릭터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2년 1월 협약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명 방송 콘텐츠도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국립과학관, 녹색에너지체험관, 어린이교통공원, 쌍암근린공원 등 주변 체험기반 시설과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소년 문화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민원인과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동한다 숨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민원 통화 종료에 관한 근거는 기존에는 관련 지침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민원인이 폭언·폭행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담겼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Cheon Dan Uri Hospital. Text: 무료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료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Advertisement for Inno-biz. Text: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대기환경분야. Taeri Engineering logo and contact info.